

강기정 광주시장,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특강

NEWS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미래차국가산단, 모빌리티산업 전진기지 육성”

220만평 삼각벨트에 대선공약 포함 빅 프로젝트 준비 그린벨트 해제...기아차 이전·차 관련 연구소 등 계획

“최근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와 이 일대에 빅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전진기지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광주 호텔 아카데미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3편

강 시장은 먼저 “지난달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소에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따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 부지는 102만평(338만4000㎡) 가운데 95.6%인 98만평(323만4000㎡)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 중 25만평(81만7000㎡)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서 그린벨트 규제를 풀지 못하면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강 시장은 “국가전략사업 확정은 단순한 산단 개발을 넘어 광주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지난 2년 7개월 동안 잘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국가산단 100만평 가까이를 확보한 것이다”며 “이제는 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미래차국가산단에 아주 큰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은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과 연계한 220만평 규모의 삼각벨트인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구축된다”며 “여기에 50만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기아자동차 이전이나 자동차 관련 연구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조기 대선 공약

로 추진 중인 것들도 있어서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빅 프로젝트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강 시장은 또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지역 기업을 찾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과 광주사업장 주요 관계자, 그리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파악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책 마련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존, 자동차 등 수출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금호타이어, 기아 오토랜드 이 3개 공장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시장은 또 “반도체 설계(팹리스) 등 세계적인 AI 기업들이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고 지사를 설립하면서 광주시의 AI집적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 광주시와 본사 이전·지사 설립 등의 MOU를 맺은 인공지능 기업은 263개이며, 이 중 148개사가 등지를 들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사와 가장 높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초청 특강에서 ‘미래차국가산단, 모빌리티산업 전진기지 육성’을 내용으로 강연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협력사인 에이전트와 반도체의 핵심인 신소재 리소그래피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에이뮤처 등의 기업과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복합소평물 조성과 관련해서는 “차공을 앞두고 있는 더현대 광주, 광주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그랜드스타일드 광주는 신속, 공정, 투명의 3원칙으로 손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구 임동 일대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관광·문화·예술·여가와 쇼핑을 융합한 국내 최초

의 문화복합물로 연면적만 30만㎡에 달한 인 에이전트와 반도체의 핵심인 신소재 리소그래피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에이뮤처 등의 기업과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도 뭔가 해보아야겠다는 의지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광주의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국가산단은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과 연계한 220만평 규모의 미

래차 삼각벨트인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구축된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2027년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오는 2031년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7384억원과 1만1829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색 마이스 명소 ‘전남 유니크베뉴’ 23곳 지정

도, 인사리공원·담빛예술창고·남포미술관 등 6곳 신규 홍보·컨설팅·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경쟁력 강화 기대

전남도가 광양 인사리공원, 담양 담빛예술창고, 고흥 남포미술관 등 6개 유니크 베뉴를 새롭게 선정, 전남을 대표하는 이색 마이스(MICE) 명소를 23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전남 유니크 베뉴는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갖추고,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며,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이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3년 최초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여수 예술마루, 나주 3917마중, 구례 쌍산재 등 20개소(현재 17개소 운영 중)를 지정해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월부터 진행한 공모에서 신규 추천을 받은 총 30곳 가운데, 마이스 전문가의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23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전남 유니크 베뉴는 △담빛예술창고 △아쿠아플라넷 여수 △인사리공원 △남포미술관 △장성

경이공한옥스테이&캠핑카리반 △구례 반야원 플라타너스다.

담빛예술창고는 오랫동안 방치돼 기능을 상실한 옛 양곡 보관창고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을 통해 재탄생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높은 층고와 1970년대의 붉은 벽돌 벽면을 그대로 되살린 전시·회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국내 2위 규모의 아쿠아리움 시설로, 흰고래 벨루가를 비롯한 국내외의 350여 종의 희귀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정형화된 호텔 또는 컨벤션과는 차별화된 회의 공간을 제공한다.

인사리공원은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리노베이션한 크고 작은 14채 공간에 카페, 갤러리, 한옥스테이 등으로 구성됐다.

남포미술관은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3개의 전시장, 공연장, 창작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미술관과 함께 수목 90여종과 초화류 200여종을 보



유한 전남도 제10호 민간정원 하담정이 조성됐다.

경이공한옥스테이&캠핑카리반은 한옥 장인이 오랜 기간 정통 건축방식으로 지은 6000평의 거대 한옥 체험 시설이다. 편백숲과 함께 여유를 느끼고 쉬 수 있는 공간이다.

반야원 플라타너스는 전남도 제21호 민간정원으로 70년 된 플라타너스가 있는 산책로와 아름다운 정원이 조화를 이루며 카페, 갤러리 시설을 회의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선정된 유니크베뉴에 2년간 자격을 부여하고 인증현장 수여, 홍보마케팅 지원, 마이스 인센티브 가산 지원, 관계자 역량 강화,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전남도, 남도미식산업박람회 봄 조성 앞장

지구마블 세계여행...음식·관광지 등 목포 9미 집중

전남도가 케이블TV 인기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3’을 통해 오는 10월 목포시와 함께 개최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봄 조성에 나선다.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유명 여행 유튜버 3인방인 빠니보틀, 원지, 콧투가 주사위를 던져 무작위로 정해진 여행지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고 여행 유튜버로, 특히 젊은 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2일 방송한 지구마블 세계여행3은 남

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지인 맛의 도시 목포에서 열렸다. 목포 9미(味)로 대표되는 음식과 미식 명소, 해상케이블카 등 유명 관광지가 집중 소개됐다.

방송은 케이블TV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TE0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방송된 케이블 TV 예능 ‘우리마을 통강아지’에 이어 이번 ‘지구마블 세계여행’을 통해 고흥, 장흥, 나주, 목포 등 도내 각지의 미식과 식자재, 관광지를 소개하며 미식·관광과 남



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전국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10월 열리는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의 원류이자 식도락 여행지 1위인 전남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송이 전남 미식·관광 활성화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봄 조성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Advertisement for Hotel Art-Haim VIP Club.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hotel at night and a table with membership details. The table lists two options: Vvip 1천만 (3년) and Vip 4백만 (1년). The Vvip option includes 40 nights of accommodation, 30% discount on room rates, and other benefits. The Vip option includes 40 nights of accommodation, 20% discount on room rates, and other benefits.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